

# 피아니스트 이인현 '천원의 낭만'

### 22일 문예회관에서 독주회



제63회 '천원의 낭만' 공연이 오는 22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이인현 피아노 리사이틀'로 관객을 맞는다.

이번 공연은 행복문화재단 '천원의 낭만' 초청공연으로 1년에 한 차례 이 지역의 젊은 예술인을 초청하며, 이번 무대는 피아니스트 이인현(사진)씨 독주회로 꾸며진다. 이씨는 2012년 International Keyboard Odyssiad Competition in USA에서 3위 입상했고, 유명 연주자인 조던 홀에서 데뷔연주회를 가진 주목받는 피아니스트다. 아스펜 뮤직스쿨, 이탈리아 페루지 뮤직 페스티벌 등에 참가했고, 오는 7월 광주국제음악제에서도 솔리스트로 초청됐다.

이씨는 필릭스 멘델스존의 'Fantasie Op.28 in f# minor'와 벨라 바르토크의 'Piano Sonata Sz.80', 로베르트 알렉산더 슈만의 'Carnaval Op.9' 전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또 스페셜 게스트로 도쿄프라이시포니 오케스트라 제2수석단원과 광주내셔널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객원수석 단원을 맡고 있는 일본인 오보이스트 카미야마노리토가 특별출연하며 피아니스트 박지영이 반주를 맡는다.

박씨는 오시오 코타로의 'New Cinema Paradise'를 시작으로 카미유 생상스의 'The swan'까지 연주한다. 문의 062-226-2032.

한편 이인현씨는 호남예술제 최고상을 받은 뒤 11세에 광주시립교향악단(지휘 니콜라이 디아디오우라)과의 협연 무대를 통해서 정식으로 데뷔했다.

이후 광주예술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을 거쳐 도미 후 세계 유명 음악가 배출의 요람인 보스턴 뉴 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석사 및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했고 보스턴 대학교 음악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김미은기자 mekim@

극단 Y, 20~40년차 배우 6명 무대

20일 한중곤·윤희철

7월17일 윤미란·강유미

28일 박규상·이현기

극단 Y가 세편의 작품을 통해 지역에서 묵묵히 활동하고 있는 20~40년 차 배우 6명을 조명하는 기획 '우리동네 명배우 열전'을 진행한 다.

첫 번째 작품은 '늬운 코미디언 이야기'. 무대에 오르는 이는 40여년간 무대를 떠나지 않은 배우 한중곤(57)과 연극 인생 28년을 맞은 윤희철(55)이다. 20일 오후 3시·6시, 21일 오후 5시 빛고를 아트스페이스.

서울예대 연극과를 졸업한 한씨는 극단 '시민', 광주시립극단 등에서 활동했으며 러시아 국립 슈우킨 연극대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서울·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며 경기도립극단 무대감독으로 재직했던 그는 2012년 귀향, 다양한 작품들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특히 '강경탈춤'을 전수받은 그는 마당극에서는 해학과 전통적인 몸놀림으로, 현대극에서 묵직한 연기로 깊은 인상을 남기는 배우다. /김미은기자 mekim@

## 우리동네 명배우 열전

1979년 극단 Y에서 연극을 시작한 윤씨는 광주와 순천시립극단에서 활동했으며 드라마스튜디오 대표를 역임했다. 희극적인 연기와 서민들의 삶을 표현하는 연기에 발군인 그는 '효자동 이발사', '도회야' 등 영화에도 출연했다.

'늬운 코미디언 이야기'의 주인공은 과거 악극단에서 코미디를 하던 허동팔과 천명태. 어지간해서는 아품을 드러내지 않는 허동팔은 매일 기로 보내고 지금은 딸을 찾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천명태는 서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이어 윤미란·강유미씨가 출연하는 2인극 '잘자요, 엄마!'(7월17일~19일), 박규상·이현기씨가 함께 호흡을 맞춘 '동물원 이야기'(7월28일~30일)가 공연될 예정이다. 문의 070-4250-5997. /김미은기자 mekim@



그린발레단



극단 청춘 '굿문'

# U대회와 함께, 시민과 함께 '14色の 축제'

###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 7월 1~1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 음악·연극·무용·콘서트 등 다양

광주의 여름은 문화가 수놓는다. 광주 지역 공연장 상주단체들의 축제인 제2회 '14색 페스티벌'이 오는 7월 1일부터 11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공연장상주단체페스티벌협의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14색 페스티벌'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대회기간 중 시민 문화축제로 개최하게 됐다.

광주문화재단은 18일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 중 제2회 14색 페스티벌을 동시 개최하여, 광주 시민들의 문화축제 기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을 시작으로 올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공연장상주단

체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음악·연극·무용·전통분야의 광주지역 12개 단체들이 참가한다.

올해는 특히 단체들 간 협연무대와 호남지역 단체의 교류공연이 결집된다. 연극 부문에서는 광주 대표의 5개 극단이 각자의 개성을 살린 작품을 선보인다. 극단 푸른연극마을의 연극 '꽃피자 어데선가 바람 불어와'(1일 오후 7시30분)'는 춘향전을 모티브로 하여 근원적인 사랑의 의미를 묻는다.

놀이패 신명은 빛고을시민문화관 앞 마당에서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2일 오후 6시30분)'를, 극단 크리에이티브드라마는 가족관객을 위한 창작극 '도깨비 방망이'(8일 오후 7시30분)'를 선보인다.

아트컴퍼니원은 광주의 아픈 역사를 코믹하게 풀어낸 창작극 '우리집이야'(9일 오후 7시30분)'를 준비 중이며, 극단 청춘은 연극에 국악뮤지컬 형식을 접목, 민속신앙의 소재를 결집한 '굿문'(11일 오후 5시30분)'을 무대에 올린다.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한다. 강속자오페라인과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협연무대를 올린다.

'광주여성필하모닉'을 함께 하는 오페라 하이라이트(5일 오후 5시30분)'는 오케스트라 연주와 오페라 아리아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콘서트다. 그린발레단과 광주로알발레단의 협연으로 풍성한 '해설이 있는 발레'(4일 오후 5시30분)'는 낭만발

레, 고전발레, 컨템포러리 발레의 유명한 대목을 해설과 함께 갈라 형식으로 펼쳐보인다.

K.에듀댄스컴퍼니의 창작 무용 '우리들의 푸르른 날을 위하여'(6일 오후 7시30분)'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기념, 한국의 고전미와 현대무용이 어우러진 체험형 공연을 선보인다.

이 밖에 이번 '14색 페스티벌'에서는 지역 간 교류 일환으로 순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광주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다락多樂 콘서트'(7일 오후 7시30분)'도 만날 수 있다.

전통공연도 흥을 돋운다. 전통문화연구회 열수는 화려한 타악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인수화풍'(10일 오후 7시30분)'을 무대에 올린다. 모듬북과 태평소, 디저리두(저음의 호주산 전통 목관악기) 등 다양한 악기들의 폭발적인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다. 퓨전국악 아이리야는 팔도의 아리랑을 테마로 일레트로 뉴 뮤직과 서플랜스가 결합한 새로운 국악무대를 선보인다.

공연시간은 평일 오후 7시30분, 토·일요일은 오후 5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2일 놀이패신명의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는 오후 6시30분 빛고을 시민문화관 야외광장. 티켓은 1만원부터 2만원까지이며 인터파크에서 예매가 진행 중이다. 문의 062-670-744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7월 공연 일정

일시	단체명(작품명)	비고
1일(수) 19:30	푸른연극마을 '꽃피자 어데선가 바람 불어와'	실내
2일(목) 18:30	놀이패 신명 '언젠가 봄날에'	야외
3일(금) 19:30	퓨전국악 아이리야 'Brand New Arirang'	실내
4일(토) 17:30	그린발레단 + 광주로알발레단 '해설이 있는 발레'	협연
5일(일) 17:30	강속자오페라인과 광주여성필하모닉 '광주여성필하모닉과 함께하는 오페라 하이라이트'	협연
6일(월) 19:30	K.에듀댄스컴퍼니 '우리들의 푸르른 날을 향하여'	실내
7일(화) 19:30	순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전남 단체) '다락(多樂)콘서트'	실내,교류
8일(수) 19:30	극단 크리에이티브드라마 '아동극 도깨비 방망이'	실내
9일(목) 19:30	아트컴퍼니원 '우리집이야'	실내
10일(금) 19:30	전통문화연구회 열수 타악콘서트 '인수화풍'	실내
11일(토) 17:30	극단 청춘 국악뮤지컬 '굿문'	실내

## 광주무용제 겸 전국무용제 예선 21일 개최

### 김차연무용단 등 5개팀

제24회 광주무용제가 오는 21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광주무용협회(회장 김미숙)가 주최하는 광주무용제는 지역 무용 단체의 작품성을 향상시키고 신인 안무가와 무용수를 발굴하는 대회로 최우수상 수상팀은 전국무용제에 광주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광주 무용제는 지난 22회 전국무용제에서 서영무용단의 '잠적'(안무 서영)이 대통령상을 수상, 로알발레단의 '티핑포인트 37.5'(안무 박선희),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의 '자매부'(안무 김미선)에 이어 3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았다.

올해 참가 단체는 모두 5개 팀이다. 김

차연무용단(안무 김차연)은 '보고 지고... 보고 지고...'를 무대에 올리며 김현근무용단(안무 김현근)은 현대인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역동적인 몸짓으로 풀어낸 '각자의 시점'을 공연한다.

나빌레라예술단(안무 배정화)의 참가작은 '중독'이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주의에 빠진 현대 사회를 춤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김미숙부리한국무용단(안무 김수영)은 세상 살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모두 따뜻한 인연으로 묶이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귀한 인연'을, 광주현대무용단(안무 재훈화)은 소비가 미덕이 되고, 풍요와 쾌락을 탐하는 소비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 어떤 건지 현대적 몸짓으로 풀어낸 작품 '베블린'을 공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로마 시대 건축과 로마인의 삶

### '인문지행' 21일 영화의 집

인문학 공동체 '인문지행'이 문화예술기획 행사를 진행한다. 7번째를 맞는 문화예술기획 행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강의하고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는 기획이다.

오는 21일 오후 2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의 주제는 '로마 시대의 건축과 로마인의 삶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이다.

로마 건축에 관한 강의는 전남대 건축학과 천득염 교수가 진행한다. 콜로세움, 로마시대의 복지를 보여주는 공공목욕탕, 로마의 만신전인 판테온 등 로마 시대 대표적인 건축물들이 보여주는 건축학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에 대한 강연이다. /김미은기자 mekim@



이러 로마 건축물을 로마인의 삶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박해용 박사(철학·인문지행)가 세네카와 키케로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로마인의 일상적인 삶과 문화에 대한 부분은 심옥숙 박사가 진행한다.

클래식 기타 연주회도 열릴 예정이다. 참가비 무료. 인문지행 http://cafe.daum.net/h-arete. 문의 010-2656-9208. /김미은기자 mekim@

대한인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 진, 동, 신, 대, 교수

진료문의 (062) 227-7575

진료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KT, 중앙초교, 구한미소핑, 동부소방서, 한화생명, 구한미소핑, 동부소방서, 북경랑 한의원